

# “전통문화 진흥·확산 거점 넘어 세계화로”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한식·한복·공예·전통놀이 등 5대 핵심콘텐츠 진흥·확산 주력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올 한해를 한지·한식·한복·공예·전통놀이 등 5가지 핵심 콘텐츠 중심의 전통문화 거점을 넘어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16일 전당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층과 5층 공간을 한복문화 창작소로 조성, 오는 24일 개소식을 갖는다. 이를 통해 한복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복문화 산업 진흥과 세계화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도영 원장



한국전통문화전당 전경

김도영 원장은 이날 전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은 △전통문화콘텐츠 활용을 통한 산업과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한 거점화 △새대를 잇는 전통문화 생활화라는 3가지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지문화 산업 진흥 △한식문화 진흥 △한복문화 진흥 △공예문화 산업 진흥 △전통놀이문화 진흥 등이다.

먼저,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한양 4대궁 창호지 납품을 비롯해 한지제조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 한지의 내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지 건축·인테리어산업 육성 지원,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 연구개발, 국내 유일의 한지관련 공인인증 시험기관(KOLAS)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5월 개관한 전주천년한지관을 통해 전통한지 계승과 한지문화 진흥과 전통한지 제조 다나무 수매사업,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 전통한지 보급 확대 등 한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식문화 진흥을 위해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전주음식문화 아카데미 ‘맛순클럽’ 및 인문학과 함께하는 음식강좌 등 시민과 방문객 대상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 육성과 더불어,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과 궤를 같이해 중국 청두, 메이저우, 일본 시즈오카현 등 동아시아 도시들과의 음식문화 교류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당은 올해 새로운 한복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함께 추진한 ‘2022년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대상지로 선정되며 최대 3년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전당은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전주공예품전시관을 고부가가치 공예품의 생산·유통 거점 플랫폼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더불어 지역공예 브랜드화를 위해 스타 작가 발굴 및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통놀이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전당은 전국 최초의 놀이전문 공간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통해 전통놀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및 ‘놀이공간의 관광거점화’를 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세대 간 연결 고리를 통해 전통문화를 재창조하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놀이콘텐츠를 개발 및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동아시아 청소년 전통놀이 축제를 개최해 글로벌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밖에도 열린공간(버스킹)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콘텐츠창작소 KTCC ON과 예술인지원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공예인과 지역의 청년·여성·장애인 작가 및 단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김도영 원장은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천년한지관, 한식창의센터, 전주공예품전시관, 우리놀이터 마루달과 더불어 올해는 한복문화창작소까지 더해 한지·한식·한복·공예·전통놀이 등 5대 핵심 콘텐츠를 풀어나갈 예정”이라며 “전통문화의 진흥과 확산의 거점으로 전당이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익산시, 지역문화 이끌 ‘문화기획자’ 양성

‘우리동네 문화공작소’ 1기 프로그램 참여자 20명 3월 3일까지 모집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역문화를 이끌어 갈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문화예술기획자들을 위해 ‘우리동네 문화공작소’ 1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17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우리동네 문화공작소는 마을과 동네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해보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실행해보도록 하여 문화도시를 이끌고 나가는 핵심 주체이자 문화기획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참여대상은 평소 익산시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문화기획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기에는 총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교육 △문화기획 입문 강연 △특화주제별 멘토링 △프로젝트 실습 순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진행하는 멘토와 강사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15주간 중앙동에 있는 익산청년시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과정에 80% 이상 출석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2023년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코디네이터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원도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마을코치 양성 프로그램은 익산시의 문화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발굴하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많이 양성되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익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사전신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상세 문의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070-4116-7828)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난해 열린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모습

(사진=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제공)

##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역대 최고

국제경쟁부문 공모 83개국 604편 작품 출품

4월 펼쳐지는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공모에 역대 최대의 작품이 출품됐다. 전주국제영화제는 16일 국제경쟁 공모에 83개국 604편의 작품이 출품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68개국 398편, 75개국 491편 출품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8개국 113편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출품작은 극영화가 357편으로 가장 많고, 다큐멘터리 188편, 애니메이션 6편, 실험영화 30편, 기타 23편이 접수됐다. 이중 다큐멘터리는 전년 대비 20편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러 전쟁 등 큰 사건이 연이었던 것이 영화인들의 창작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출품작을 대륙별로 분류했을 때는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52편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6편, 아르헨티나·인도·이탈리아가 39편을 출품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다시 활동을 시작한 전세계 영화인들을 응원한다”며 “국제경쟁 출품작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고 있다. 국제영화제로서 더욱 이름을 알려 세계 곳곳의 영화인들에게 기회가 닿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시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백영란 개인전 개최

군산시는 16일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가 오는 3월 26일까지 백영란 개인전 ‘스며드는 먹의 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깊은 우주의 색인 먹과, 순결한 빛의 색인 한지가 만나 조화를 이루며 작가의 수련과 내적 사색이 함축된 작품들로 구성됐다. 그림의 선비라는 매난국죽을 중심으로 화해, 산수 등 수묵산수와 2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백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학과를 졸업하고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전, 환경미술협회 전북지부 회원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대전 등 다수 작품활동을 해 왔다.

백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작품의 세밀함보다는 작가의 문기(文氣)를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가볍게 사색하듯 감상하며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



은 지역 출신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장미갤러리 전시작가를 선정하여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 기회와 함께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